직장탐방

이화여고 양호실편

사람은 우선 건강해야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곳엔 으레 병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러기에 의료업으로서의 간호사업도 그 양상이 다양한 것은 정한 이치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엔 양호실이 갖춰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철학은 "우선 건강"이 통상적으로 돼 버린 것 같다.

이번에 기자가 찾은 곳은 정릉에 있는「이화여고 양호실」

하필이면 비가오는 날 굳이 직장 탐방을 하겠다고 나섰을가.

이곳만이 서울인듯 고색이 만연한 덕수궁고궁담을 끼고 돌어가 대법원앞을 지났다. 하학시간이 됐는지 삼삼오오 열을 져 쏟아져나오는 이화여고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문이 어디 있어요?」

「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돼요」

연조 높으시고 간호계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다는 김금란선생님을 머리속에 생각하면서 양호실을 찾아 들어가는 동안 단정한 학생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아마도 새로오신 선생님으로 잘못 안 것 같다.

10여년전 여학교시절을 잠깐 회상하며 2층에 자리한 양호실앞에 당았다.

「선생님 계세요?」

「어서 와요. 비가 오는데도…」

작은 키에 관록이 있어 보이시는 양호선생님이다.

마침 두통으로 누워있는 한 학생의 체온을 재고 계시기에 휴대했던 카메라를 꺼내 사진 한장을 찍었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인가보죠?」

「아니요, 오늘은 학교행사가 있어 좀 일찍 파했기 때문에 한산한 편이지요」

항상 학생보건부원이 교대로 당번을 맡아 선생님을 돕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 이 학교엔 언제부터 양호실이 개설되었는지요?」

「1930년(교장 미쓰처치), 그러니까 제정당시지요. 본래 학교의 역사도 깊지만 학교에 양호실이 생긴 것도 제일 먼저 입니다. 처음엔 기숙사에 간호원을 두어 밤에는 기숙사생을, 낮에는 일반학생을 치료했으며 완전한 위생시설을 갖추게 된것은 1933년 신봉조교장 당시입니다.」

90평가량이 된다는 이 양호실은 침실이 60평 치료실이 30평으로 Bed 9개중 4개가 중환자용이고 5개가 일반환자용으로 배치되어 있고 치료시설도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60학급 3,600여명의 학생과 130여명의 선생을

<두통으로 양호실찾은 학생에게 간호하고 계시는 김금란 양호선생님>

〈이화여고 보건부일동과 기념촬영한 광경〉

상대로 하는 이 양호실은 일일 4,5십명의 환자가 드나들며 침실 9개가 꽉꽉 차고 있다고.

대개 환자의 종류는 감기, 두통, 비출혈, 생리통, 의상, 체하거나 설사등의 환자이다.

그러나 양호실에서는 「응급처치」를 주로하며 중환자가 생길때는 고극훈 본교교의가 있는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하나 급한 환자는 가까운 적십자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본교에서 학생건강을 담당하는 분은 양호선생외에도 교의가 일주일에 두번씩 강의를 담당하고 치과의 지현택선생, 약제사 송창근선생이 계셔서 든든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고 은근히 학교자랑도 덧붙여 주신다.

금년이 근속 13년이 되시는 김금란양호선생님은 69년 5월30일 이화여고창립기념일을 기해 10년근속 표창을 받으신 이화의 보물같은 선생님이다.

1933년부터 세브란스병원에 주로 계시다가 1944년엔 조산원개업을 하여 5년8개월동안 종사하였으며 1957년엔 미제8군 제10보급부대 의무실에 1년반을 근무하신 다양한 경력을 가지셨다.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교육계에 계시면서 대개 어떤때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간호원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중환자(학생)의 회복을 볼때가 가장 흐뭇합니다.」

「혹시 불만 같은 것은?」

「나의 경우엔 전연 없읍니다. 항상 내집 같고 모두가 내 딸과 같아서 어려울땐 연구하고 의논해서 시정해 나가면 됩니다. 위생비품 공급관계도 전연 불편이 없으며 교장이하 전 학생이 "건강제일"을 찾기 때문에 양호실의 역할이 아주 중하게 여겨집니다.」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양호교사로서 불만이 없고 한가지 말할 것은 전체양호교사에 대해 국가에서 좀 대우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점이죠.」

「양호실 어머니」로 불리우는 김금란선생님은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은 학생건강상담을 갖는다고 한다. 집의 어머니한테도 다 못하는 이야기를 나한테는 의논해 온다고 사춘기 학생들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호뭇해 하신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양호실 제도중에는 교과과정중 건강에 무리한 학생은 양호증을 발부받아 휴강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특히 특수병고(결핵, 만성신장염, 수술자)제도가 있어 이 경우에도 양호선생님이 학생의 병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혜택을 받을수가 있단다.

「지난 여름, 양호교사 예방주사행위에 대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던 일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디까지나 규정대로 상규처방을 받고 행했어야지요.」

「우리 학교에선 예방접종계절을 맞이하면 으레 학부모님께 접종에 대한 안내장을 보냅니다. 접종해야 하는 병명과 일반예방법 예방주사비대상자의 상대 등을 명백히 적어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부모님들과 협조합니다. 돌가피하게 본인이 행해야 할때엔 반드시 교의의 처방을 받아 행하고 있으므로 항상 안전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유있게 이야기해주신 선생님과 작별하여 총총히 층계를 내려오는데 누가 좇아내려온다. 어렵게 방문해준 기자에게 예의가 아니라면서 교문까지 친히 배웅을 해주셔서 정말 어머니 같이 푸근함을 느끼며 아직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교문밖으로 우산을 펴들었다. (林)